

# 한반도 둘러싼 안보 정책의 문제점은...

입력 2024.05.24 17:06 업데이트 2024.05.26 14:33

## 국방대 2024년 인도-태 안보정책포럼

### 지역 정세 인식·대응전략 열띤 토론



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'2024년 인도-태평양 안보정책포럼'이 열리고 있다. 국방대 제공

국방대학교(국방대)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최근 2024년 인도-태평양 안보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기존 '동북아 안보정책포럼'으로 이어져 온 것을 올해 개칭·확대한 것이다. 넓은 지리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책상의 문제를 논의하고, 정부의 인도-태평양전략 발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대는 설명했다.

행사에서는 '북한의 새로운 대남 접근 및 핵 위협 평가' '글로벌 및 인도-태평양 지역 안보정세와 각국의 대응' '북핵 대응을 위한 한·미·일 군사협력 강화방안' 등을 놓고 발표·토론이 전개됐다.

특히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한국의 인도-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며, 국방·안보 분야 정부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목받았다. 유상범 국방대 교수는 미국·일본 전문가들의 인도-태평양 지역 정세 인식 및 대응전략 발표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.

아울러 한국국방연구원 함형필 박사(위싱턴 선언과 확장억제 발전 방향), 한국국방외교협회 권태환 박사(북핵 대응을 위한 한·미·일 군사협력 방향),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(글로벌 안보정세에 대한 한·미·일 3국 협력 방향) 등 국방대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발표·토론도 주목을 받았다. 서현우 기자